

## 냉전의 균열과 분단국 지도자의 이상: 1984년 북한과 동독의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박아름(강원대학교 강사)

### 논문요약

냉전기 북한과 동독은 각각 아시아와 유럽에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보루로 서로를 ‘서방의 전초기지’와 ‘동방의 전초기지’라고 호명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 미·소의 갈등과 화해, 중·소의 관계정상화라는 신데탕트 흐름은 분단국인 동독과 북한에 많은 고민과 새로운 전략을 요구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 김일성과 호네커의 정상회담을 통해 당시 각국의 대내외상황, 지도자의 인식과 협동전략, 함의를 분석하였다. 첫째, 1980년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동서독의 긴장 완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정상회담 중 비공개회담 내용을 통해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조치와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 강화를 확인하였다. 셋째, ‘미소 중심의 냉전사’와 ‘중소 중심의 진영사’를 넘어 북한과 동독 양국이 모색했던 ‘새 세계’에 대한 이상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북한, 동독, 김일성, 호네커, 1980년대, 신냉전, 신데탕트



## I. 들어가며

냉전의 해체 직후 동독의 기밀문서가 밝혀지면서 언론에서는 특별기고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sup>1)</sup> 러시아가 공개한 문서가 1960년대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던 반면, 동독이 공개한 문서는 1989년까지 냉전기 전체를 담고 있었다.<sup>2)</sup> 당시 동독의 기밀문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제한적인 자료를 접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개되었지만,<sup>3)</sup> 이후 연구도 여전히 1950년대를 조명할 뿐 1980년대 김일성과 호네커(Erich Ernst Paul Honecker)의 정상외교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

1980년대 중반은 신냉전이 신데탕트로 전환되던 시기로 사회주의 국가 각국의 대응 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의 대응은 냉전사에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특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을 제외한 약소국의 역할 및 대응은 학계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냉전기 북한-동독 관계 연구는 북한의 대외관계 연구가 지닌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첫째, 북한 대외관계 연구의 대부분은 소련과 중국이 차지하며 다른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도 소련 및 중국과의 연계에서 분석되었다.<sup>4)</sup> 둘째,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며 이후 연구는 탈냉전기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공백으로 남아있다.<sup>5)</sup> 셋째, 타국가의 외교사료들이 밝혀지면서 북한의 상대국가에 대한 외

1) “김일성-호네커 회담록(구동독정부 남북관계 기밀문서: 상).” 『한국일보』 1995년 10월 12일; “서울을 립픽 대응과 평가(구동독정부 남북관계 기밀문서: 중).” 『한국일보』 1995년 10월 13일; “『북한 외교』 평가 보고서(구동독정부 남북관계 기밀문서: 하).” 『한국일보』 1995년 10월 14일; “김일성이 본 각국 지도자(구동독정부 남북관계 기밀문서: 하).” 『한국일보』 1995년 10월 15일; “김일성, 호네커회담 발언록 월간조선 입수 ‘남한학생 반미구호 우리주장과 같아.’” 『조선일보』 1995년 10월 12일, 8면; 조갑제, “김일성의 충격 고백.” 『월간조선』, 제188권, 1995.

2) “통독정부 기밀문서 분석과정/주간한국 「김·호네커 대화」입수/49~89년 북한현대사 중요자료.” 『한국일보』 1995년 10월 12일.

3) “구동독정부 기밀문서를 읽고-김성철 민족통일연책임연구원(특별기고).” 『한국일보』 1995년 10월 23일.

4) 이경석·김경미, “냉전기 북한-동독의 외교관계(1953~1989): 협력과 갈등.” 『유럽연구』 제34권 3호, 2016, p. 151.

교사료와 타국가의 외교사료는 활용되었지만, 북한의 공식문헌과 대한민국의 외교사료는 참조되지 않았다.<sup>6)</sup> 무엇보다 동독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 동독을 상대로 기술협력을 요구한 부분만 부각되었으며, 양자관계에서 동독의 이익은 단순한 원료의 획득 또는 정치적인 상징으로만 기술되었다.<sup>7)</sup>

냉전기 북한과 동독은 각각 아시아와 유럽에서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보루로 서로를 ‘서방의 전초기지’와 ‘동방의 전초기지’라고 호명하였다. 특히 1980년대 미·소의 갈등과 화해, 중·소의 관계정상화라는 신데탕트 흐름은 분단국인 동독과 북한에 많은 고민과 새로운 전략을 요구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 김일성과 호네커의 정상회담을 통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과 동독의 정상회담이 왜 1984년에 이뤄졌을까? 1980년대 중반 북한과 동독의 대외환경과 국내정세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김일성과 호네커 두 정상은 어떤 주제의 대화를 나누었을까? 특히 비공개회담 내용을 분석하여 주제가 거론된 이유, 양국 지도자의 국제정세 인식과 협력했던 방안들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1980년대 중반 북한과 동독 정상회담의 함의는 무엇인가? ‘미소 중심의 냉전사’와 ‘중소 중심의 진영사’를 넘어 북한과 동독 양국이 모색했던 ‘새 세계’에 대한 이상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해당 국가와 타국가의 외교사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베를린 독일연방기록관 소장 1945년 이후 한국 관련 사료」이다. 둘째, 우드로 윌슨센터의 「디지털 아카이브 국제사 기밀해제」

5) 이시연, “전후 북구 시기 동독의 북한 원조.”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54집, 2020; 성상환, “북한과 구동독의 외교관계에 대한 분석적 고찰 -1950년에서 1960년까지의 독일외무성사료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49집, 2010; 김 면, “구동독의 대(對) 북한 사회주의 건설지원.” 『한국동북아논총』 제34집, 2005; 이정민, “함흥 전후북구사업을 통해 본 북한-동독 관계.” 『역사문제연구』 제43호, 2020; 만프레드 하이네만(Manfred Heinemann)·유진영, “동독과 북한의 학생교류사: 사회주의 형제국가 간의 문화·외교정책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교육사학』 제42권 제1호, 2020; 유임하, “전후 북한 지식인의 독일 방문과 국제교류 경험.” 『동악어문학』 제88집, 2022.

6) Schaefer, Bernd, “Weathering Moscow and Beijing: The GDR and North Korea, 1949-1989.” 『역사문화연구』 제21호, 2004; Lim, Cho Rong, “동독의 대북정책-호네커 집권 시기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학위논문, 2021.

7) Lim, Cho Rong, “동독의 대북정책-호네커 집권 시기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p. 46.

자료이다. 셋째, 북한의 『로동신문』과 『조선중앙년감』이다. 넷째,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이다. 특히 독일기밀문서 자료는 선정의 배제와 번역의 오탈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보유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한국어 번역의 결과물을 교차분석하였다.

김일성과 호네커의 정상회담은 신냉전이 신데탕트로 전환되는 국제적 변화 속에서 사회주의 진영을 고수하고자 노력했던 분단국 지도자의 이상을 단면적으로 보여 줄 것이다.

## II. 1980년대 북한과 동독의 국내외 정세

### 1. 냉전의 고조와 균열

1983년 무기들의 이동이 많았다면, 1984년에는 사람들의 이동도 증가했다. 1984년 북한과 동독 뿐 아니라 주변국가의 정상들도 진영 내에서, 진영을 가로지르며 정상회담을 이어갔다.<sup>8)</sup> 1983년 무기의 배치가 냉전의 갈등을 최고조로 만들었다면, 1984년 사람의 만남은 냉전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1984년 이전 미국의 서구 미사일 배치와 중미관계 협력은 미소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소의 화해를 더디게 만들었다. 소련은 미국과 일본, 중국이 자국을 고립시킬 것이라 확신했으며,<sup>9)</sup> 1983년 발생한 KAL기 격추사건은 소련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또한 세 번의 지도자 교체를 겪게 된 소련과 달리,<sup>10)</sup> 미국은

8) 1984년 1월 8일~16일: 조자양 중국 수상 미국 방문, 1984년 1월 26일~2월 2일: 아베 일본외상 미국 방문(레이건 대통령, 부시 부통령, 슐츠 국무장관, 와인버거 국방장관 회담), 1984년 3월 23일~26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수상 중공 방문, 1984년 4월 26일~5월 1일: 레이건 중국 방문, 1984년 5월 4일~11일: 중국 후야오방 공산당 총서기 북한 방문, 1984년 9월 6일~11일: 전두환 일본 방문, 1984년 11월 26일~28일: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 방문, 1984년 12월 21일~29일: 아르히포프 소련 제1부수상이 중국을 방문, 조자양 수상과 회담.

9) 외교부, “김일성 북한 주석 소련 및 동구 순방, 1984.5.23.-6.21. 전2권.V.2 결과보고 및 자료.”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I)』, 서울: 외교부, 2015, p. 632.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대소련 압박전략을 지속했다.<sup>11)</sup> 1983년 3월 레이건은 스타워즈 계획(Starwars)으로 알려진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했으며, 11월 그리폰 순항미사일(BGM-109G)과 퍼싱 II 탄도미사일(MGM-31B 퍼싱 II)을 유럽에 배치했다. 이에 1984년 소련도 SS-21을 동독, 체코에 배치하면서 동서독은 미소 핵무기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었다.

중국과 소련은 1982년 3월 브레즈네프의 ‘타시켄트’ 제안 이래 관계정상화를 위한 부외상 회담(82.10., 83.3., 83.10., 83.3.)등을 통해 공식대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중국이 양국관계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3개항(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국경주둔 소련군 감축 및 극동배치 미사일의 감축,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지원 중단)이 해결되지 않고, 소련이 양국 간 상호 신뢰회복 조치(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 비핵지대 설정, 국경주둔군의 상호방문과 현수준 동결, 양국간 직통전화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개선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1984년 12월 21일~29일 아르히포프(Василий Архипов) 소련 제1부수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협력 협정 체결 및 공동 경제위원회 설치·운영에 합의했으며, 1986~1990년간 장기무역협정을 1985년 중 체결키로 하고 소련은 중국 부총리를 초청하면서 관계정상화가 가시화되었다.<sup>12)</sup>

10) 1980년대 초 소련은 세 번의 지도자 교체를 겪었다. 1964년부터 1982년까지 오랜 기간 서기장을 지낸 브레즈네프가 사망하고, 안드로포프(Yuri Andropov: 15개월, 1982.11~1984.2), 체르넨코(Konstantin Chernenko: 13개월, 1984.2~1985.3)의 짧은 통치를 거쳐 젊은 서기장인 고르바초프(1985.3~1990)가 등장하였다. 김학준, 『러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 2005, p. 349.

11) 데이비드 E. 호프먼 지음, 유강은 옮김, 『테드랜드』, 서울: 미지북스, 2015, p. 235.

12) 외교부, “중공·소련 관계, 1984-198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I)』, p. 220.

## 2. 냉전의 동방초소: 한미 군사협력 공고화와 북한의 대응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다른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변동이 없거나 감소했지만, 한국에 대한 지원은 증가했다. 1980년대 전반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계획(제2차 율곡사업 1982~1986년 간 제2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군은 전차 및 대전차 장비와 공군력이 크게 개선되어<sup>13)</sup>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sup>14)</sup>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1983년에 발생한 두 개의 사건(아웅산 사건, KAL기 격추 사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1000여 개의 핵무기를 도입했다며 극도의 불안을 드러냈다.<sup>15)</sup>

1983년 아웅산 사건 직후 레이건은 주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전두환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제1차 정상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북한 공산 집단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한 미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기술을 계속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15개 항에 걸친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공동성명 제4항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 미국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양국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협력’과 협력의 동반국이 될 것을 내외에 천명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특별히 유의한다고 밝히고, 한국군 전력 증강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의

13) 선종률, “남북한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pp. 70~81.

14) 빅터 D. 차,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p. 270~271.

15) “미제는 이미 남조선에 전투폭격기용 핵폭탄 192발, 8인치핵포탄 56발, 155미리핵포탄 152발, 지상대지상 《싸젼트》 미싸일핵탄두 12발, 핵 지뢰 150발을 끌어들이는데 이어 1983년에는 또다시 항공용핵폭탄 133개, 155미리곡사포용핵포탄 31개, 핵지뢰 21개, 8인치곡사포용핵포탄 63개 도합 248개의 핵무기를 새로 끌어들이었다. 이처럼 미제는 남조선에 핵폭탄과 핵포탄, 핵탄두와 핵지뢰 등 핵무기를 무려 1,000여개나 전개하여 놓았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4, p. 317.

상환조건·이자율·금액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sup>16)</sup> 실제 1983년 미국은 총 47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무기구매를 포함한 5개년 군사향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sup>17)</sup>

1984년 북한은 남북미 3자대화를 제안하고,<sup>18)</sup> 남측에 수해물자를 제안,<sup>19)</sup> 「합작회사운영법(합영법)」<sup>20)</sup>을 공포하는 등 대외이미지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미의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1984년 미국은 한국을 ‘중요한 이해관계지역(a significant interest area)’에서 ‘사활적 이해관계지역(vital interest area)’으로 격상시키고 ‘방위의 제1선(the first line of defence)’으로서 서유럽과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했다.<sup>21)</sup>

---

16) “전두환-레이건 정상회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41&sitePage=\(검색일:2023.8.7.\)](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41&sitePage=(검색일:2023.8.7.)); FMS는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안보원조 구성 프로그램으로서 군사원조프로그램(Grant 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국제군사교육훈련(International Education Training),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등 과 함께 핵심 정책 수단이었음.

17) 제임스 E. 도거터, 로버트 L. 팔츠그라프 지음, 이수형 옮김, 『미국의교정책사: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파주: 한울엠플러스, 2020, p. 532.

18) 김일성은 1984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북한, 미국, 남한 사이의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같은 해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 270.

19) “남조선의 수해지역 리제민들에게 쌀 5만석, 천 50만메터, 세멘트 10만톤, 기타 의약품을 구호물자로 보내기로 결정(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로동신문』 1984년 9월 8일, 3면.

20) 고유환, “사회주의의 위기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 1995, p. 35.

21) 선종률, “남북한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p. 69.

### 3. 냉전의 서방초소: 참여한 핵 경쟁 속 동서독 교류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이 체결되기까지 동서독은 핵 전쟁의 긴장 속에 놓여 있었다. 1983년 11월 미국은 소련의 SS-20을 견제하기 위해 개발한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퍼싱 II 탄도 미사일과 그리폰 순항 미사일을 서독에 각각 108발, 96발 배치했다. 그리폰 순항 미사일은 영국 160발, 이탈리아 112발, 네덜란드 48발, 벨기에 48발로 나눠 배치되었지만, 퍼싱II는 전량 서독에 배치되었다. 그리폰 순항 미사일, 퍼싱II 탄도미사일의 배치 시작이 결정된 직후인 1983년 11월 23일, 소련이 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미소 양국의 INF 협상은 2년 만에 중단되었다. 이후 1984년 소련의 SS-21이 동독, 체코에 배치되면서 동서독은 미소 핵무기 경쟁의 최전선이 되었다.

국제정세와 달리 1980년대 동서독 관계는 ‘이성의 연합(Koalition der Vernunft)’이나 ‘책임공동체(Verantwortungsgemeinschaft)’ 같은 용어들이 이어지며, 1970년대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했다.<sup>22)</sup> 기민련(CDU) 소속의 콜(Helmut Kohl) 정부는 이전 사민당의 브란트(Willy Brandt)수상과 슈미트(Helmut Schmidt)수상이 추진했던 대(對) 동독 교류협력정책의 기초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과의 집단안보 강화를 주장하고 동독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동독과 거리를 두었다. 특히 서독의 사민당은 동독이 통일을 부정할수록 동독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서독 의회 간의 교류를 활기차게 이어갔다.<sup>23)</sup>

1983년 6월 29일 동독은 경제 불황에 의한 외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서독으로부터 약 11억 마르크 차관을 받았다. 이 댓가로 동독은 이산가족 재회 조건을

22) 이동기, “1980년대 서독 녹색당의 평화·통일 정책.” 『EU연구』 제33권, 2013, p. 387.

23) 양현모, “동서독 의회 간 교류 사례가 남북 국회회담에 주는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9, pp. 17~19.

완화시켰다. 1983년 퍼싱 II의 서독 배치상황에서 동독은 동 미사일이 철회되지 않는 한 양독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천명하였지만, 1984년 2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콜과 호네커 서기장은 회담을 통해 서독이 1984년 7월 25일 각의에서 연리 1%의 저리차관 9.5억 마르크의 동독 제공을 결의하고 1984년 8월 1일 동독은 동·서독 간 인적교류 제한 완화에 합의했다.<sup>24)</sup>

### III. 김일성-호네커 정상회담 현황

1984년 김일성의 동독방문은 소련을 시작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sup>25)</sup>를 방문하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1984년 5월 29일~6월 4일까지 김일성과 호네커는 각각 세 차례의 공식연설과 세 차례의 비공개 회담을 열고, 2개의 협정을 체결했다. 1984년 김일성과 호네커의 공식적 만남은 1977년 호네커의 방북, 1980년 티토(Josip Broz Tito)의 장례식<sup>26)</sup>에 이어 세 번째 자리였다. 1912년 생 동갑내기인 양국의 지도자는 1980년 티토 장례식 이후 서로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명해 온 터였다. 양국은 각 국가와 당의 기념일에 축하를 보내고, 당대회의 결정을 지지했으며,<sup>27)</sup> 1982년에는 서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며 자국의 가장 권위있는 훈장을 선물했다.<sup>28)</sup> 김일성이 동독에 도착하기 전, 김일성은 중국의 호요방(胡耀

24) 1980년 5월 8일 김일성-호네커 동독 당서기장 면담(베로그라드) “동독·서독 관계, 1984.” 외교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II)』, 서울: 외교부, 2015, p. 1558.

25) 소련,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26) “동독-북한 관계 일지(1985.9.현재).” 『북한·동독 관계, 1981-88』, 공개번호 30133(외교부), p. 8.

2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 쏘베트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1980년 5월 8일, 2면;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의 이룩한 성과와 앞으로의 과업-독일사회통일당 제10차대회에서 한 에리히호네케르의 보고.” 『로동신문』 1981년 4월 16일, 6면.

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독일사회 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독일 민주주의공화국 국가 쏘베트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동지가 축하편지와 선물을 보내어 왔다.” 『로동신문』 1982년 4

邦)과 비공개회담을 마치고, 소련의 체르넨코(Константи́н Усти́нович Черне́нко)를 만난 후였다.<sup>29)</sup> 따라서 김일성은 미중관계와 중소관계에 대한 따끈한 정보를 안고 있었다. 또한 5월 동독의 국무비서 겸 외무성 제1부상인 헤르베르트 크롤리코브스키(Herbert Krolikowski)가 북한에서 김일성과 예비 접촉을 진행하여 동독과 북한의 입장을 미리 조율할 수 있었다.<sup>30)</sup>

## 1. 비공개 회담

### (1) 북한은 국내적 어려움 호소, 동독은 제3차 세계대전 우려

5월 30일 오전 첫 비공개회담은 김일성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김일성은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보적 상황과 연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독의 기술력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이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비철 중금속을 판매하여 대외채무를 일부 상환하였으며 아연 1톤의 국제가격이 약 720파운드로 상승했기 때문에 내년(1985년)에는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sup>31)</sup> 하지만 높은 매장량에 비해, 기술적인 문제로

월 14일, 2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최고훈장인 <칼 맑스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 『로동신문』 1982년 4월 23일, 1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최고훈장을 받으시었다.” 『로동신문』 1982년 5월 21일, 1면;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국가 쏘베트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에게 우리 나라 훈장이 수여되었다.” 『로동신문』 1982년 9월 7일, 2면.

29) 레이건 중국방문(1984년 4월 26일~5월 1일), 호요방 북한방문(1984년 5월 4일~11일)

30) “Band 16. 외무부 차관 겸 수석대표 헤르베르트 크롤리코프스키 박사의 김일성의 방문 접견 (Band 16. Genosse Dr. Herbert Krolikowski, Staatssekretär und 1. Stellvertreter des Minister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zum Besuch von Kim Il Sung).”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Bestand DY30 IV 2/2.040, Band 16 사료철 ADE006\_38\_10C0009, [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38\\_10C0009](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38_10C0009)(검색일:2023.7.30.).

31) 실제 북한은 1983년 말 대서방 채무 22.75억 달러 중 오스트리아 약 88백만 달러, 서유럽 은행단 약 5천만 달러 등 약 1.68억 달러를 1984년 8월 30일에 상환하고 서유럽 은행단, 프랑스, 서독, 핀란드, 벨기에 등과 분할상환 계획에 합의하였다. 외교부, “북한의 대구주 부채 상환 교섭, 1984.”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I)』, p. 644.

채굴의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동독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력발전소를 소련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협력받아 받은 전망이 있지만, 노동력 문제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력 문제는 미군 주둔과 한미 군사훈련 영향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계화와 자동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성은 1983년과 1984년 팀스피릿 훈련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남침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하여 그 빌미로 한국에 주둔하고 무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sup>32)</sup> 또한 북한은 남침이 비록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고 권한도 없지만, 남북미 3자 대화를 제안하였는데, 한국과 미국은 이를 거절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4자 대화는 중국에서 반대했음을 알렸다.<sup>33)</sup> 마지막으로 우호조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왔음을 밝히고 김일성은 전후복구시기 동독의 지원(고아 보육, 함흥시 재건)을 자세히 언급하며 감사를 전했다.

호네커는 현재 국제정세에 대해 미국이 데탕트 정책에서 대결 정책으로 이탈했으며 레이건 집권 이후 상황이 더 나빠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독에서 슈미트 정부 이후 우파적 경향이 높은 콜 정부가

32) 일·중 외상회담 시 한반도 관계 언급내용(84년 8월 17일, 도쿄) 오학겸 외상 ‘김일성 주석은 그간 누차에 걸쳐 남침 의도가 없음을 남북접촉을 통해 평화통일 추진할 뜻을 표명, 남북한의 장기분단으로 상호 접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하나 북한의 희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이번 전 대통령방의 방일시 남북한 간의 화해에 불리한 언동으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되며 남북대화를 저해하지 않기를 희망’ 외교부, “일본·중공 관계, 1984.”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I)』, pp. 218~219; 중국 외교부 측이 주중 일본대사관에 브리핑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또 남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언급 함. 외교부, “호요방 중공 당 총서기 북한 방문, 1984.5.4.-1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I)』, p. 635; 1984년 레이건 중국 방문 시, 레이건과 호요방 당총서기 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북한은 군사력 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음을 지적한 데 대해 호요방 총서기는 남북한이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 함. 외교부, “Reagan, Ronald 미국 대통령 중공 방문, 1984.4.26.-5.1. 전2권. V.1 기본문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I)』, p. 223.

33) 1984년 4월 28일 오학겸과 슬츠의 미중 외상회담에서 오학겸 외상은 북한이 3자회담 제외와 관련, 회담형식 등에 관해 융통성을 갖고 있으며, 3자회담 문제에 대해 미측과 비밀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를 구두 전달, 슬츠 장관은 남북한 양자회담 또는 4자회담 선호 입장을 강조하고, 미·북한 간 비밀 접촉 의사 없음을 확인 함. 외교부, “Reagan, Ronald 미국 대통령 중공 방문, 1984.4.26.-5.1. 전2권. V.1 기본문서.”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I)』, p. 224.

들어서, 무기 배치를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 많은 성과들을 소개하고 동독은 소련으로부터 매년 1,700만 톤의 석유와 650만 톤의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석탄이 없기 때문에 전력의 대부분을 갈탄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일성이 북한에 갈탄 매장량이 많지만 기술력이 부족하여 채굴하지 못한다는 상황에 대해 세계 최대의 갈탄생산업체에서 문서 및 설계자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호네커는 동독은 북한과 동일하게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도록 만드는 것을 임무로 간주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동독의 대외무역에서 70%는 사회주의 30%는 비사회주의 국가가 차지하는데, 비동맹 국가들과의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특히 비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sup>34)</sup>

## (2) 중국은 소련 및 타 국가와 평화공존을 원한다

5월 31일 두 번째 비공개회담에서 호네커는 동독의 경제적 발전상황(1990년까지 주거문제 해결)을 간략히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중국의 상황과 현재 지도부에 대해 질문했다. 김일성은 소련을 출발하기 전, 북한에서 (레이건과 회담 후 북한을 방문한)호요방(胡耀邦)과 회담을 마친 후였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전략, 그리고 중소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미국, 일본, 인도, 심지어 소련과도 평화공존을 원하고 있으며, 덩소평(鄧小平)도 같은 입장임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중국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중국의 근대화 전략으로 발전된 기술과 신용을 얻으려는 목적밖에 없으며, 소련과의

34) “에리히 호네커와 김일성의 대화각서(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Erich Honecker and Kim Il Sung, June 1, 1984).” In Grace Leonard ed.,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SAPMO-BA, DY 30, 246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199>(검색일:2023.7.30.); Kim, Il Sung·Paul Markowski·Erich Honecker·Niklas, “Band 2460. 에리히 호네커와 김일성의 회담(Band 2460. Besprechung zwischen Erich Honecker und Kim Il Sung).”, Bestand DY30, Band 2460, pp. 216~246, [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38\\_01C0003](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38_01C0003)(검색일:2023.7.30.).

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역시 자본가들에게 맡길 수 없으며, 10억 명의 중국인이 사회주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호네커에게 얼마 전 취소된 소련 아르히포프동지의 중국 방문이 다시 성사되도록 소련에 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일성은 중국과 베트남 국경분쟁에 대한 호네커의 질문에 중국 측 자료만 접했다고 솔직히 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한미일 삼각동맹은 반대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를 지지하며, 일본이 중국에 20억 달러의 신용을 약속한 것<sup>35)</sup>은 중국경제에 좋은 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 대화를 마쳤다.<sup>36)</sup>

### (3) 사회주의와 비동맹운동의 연대를 통한 ‘새 세계’ 도모

6월 1일 김일성과 호네커는 마지막 비공개회담을 가졌다. 김일성은 첫 비공개 회담부터 설명하고 싶었던 비동맹운동에 대하여 자세히 전하고 호네커의 협력을 요청했다. 북한은 1975년 비동맹운동의 정회원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동맹에 속해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다시 제3세계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동맹 국가들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식민주의의 위협에 빠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결방법을 제안했다. 첫째, 개별 개발도상국을 추가하여 사회주의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 둘째, 개별 사회주의 국가와 개별 개발도상국 양자 간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

35) 일-중 경제관계 현황(84년 3월 26일, 주일본대사관 보고) 1. 경제협력관계 1) 엔차관: 79~83년간 6개 프로젝트에 총 3,000억 엔 공여(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 2) 무상원조: 79~83년간 중앙 우호병원 건설(164.3억 엔)등 165.8억 엔 3) 수은 자원개발 용자: 80~84년간 일본 수출입 은행이 중국은행에 4,200억 엔 공여 2. 기술협력 1) 82년 말 누계로 연수생 접수 1,197명, 전문가 파견 800명 2) 공장근대화 계획, 자원개발 조사 등 프로젝트 협력 3. 무역은 72년 11억 달러에서 81년 104억 달러에 달함 4. 일본의 대중투자는 83.3월 현재 22건 7,000만 달러. “일본-중국 관계, 1984,” 외교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1)』, p. 218.

36) “에리히 호네커와 김일성의 대화각서(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Erich Honecker and Kim Il Sung, June 1, 1984).” In Grace Leonard ed.,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SAPMO-BA, DY 30, 246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199>(검색일:2023.7.30.).

의 국가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가와 기술 문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값싼 원자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김일성의 이러한 인식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새 세계'에 대한 바람이었다.<sup>37)</sup> 김일성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수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만으로 아프리카의 식량문제를 해결한 북한의 경험을 설명했다. 호네커도 라틴 아메리카의 심각한 상황,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및 기타 국가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 사회주의 쿠바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앙골라,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언급하였다. 김일성은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지속을 결정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다.<sup>38)</sup>

## 2.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및 군사분야 협력

김일성은 동독을 방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하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사이의 1990년까지의 기간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를 발전시킬 데 대한 협정」(이하 「경제 및 과학기술 협정」)을 체결했다.<sup>39)</sup> 「경제 및 과학기술 협정」은 1977년부터 1984년까지 매년 갱신되었던 자유무역협약을 1990년까지로 연장한 조치였다.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은 1977년 호네커에 의해 제안된 것이었다.<sup>40)</sup>

37) 뵐러볼가담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기술협조를 위하여 기술자,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경우에 높은 보수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기술문건 같은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남남협조에 관한 뵐러볼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에서 한 축하연설 1987년 6월 9일).”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p. 20.

38) “에리히 호네커와 김일성의 대화각서(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Erich Honecker and Kim Il Sung, June 1, 1984).” In Grace Leonard ed.,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SAPMO-BA, DY 30, 246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199>(검색일:2023.7.30.).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1990년까지의 기간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었다.” 『민주조선』 1984년 6월 2일, 1면.

1984년 동독에 도착한 김일성이 “1977년 호네커가 1년 후 여기 베를린에서 조약에 서명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상황 때문에 곧 방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다소 늦게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sup>41)</sup> 한편 1982년에 조약 전문과 조항에 대한 초안이 잡혔었지만 1984년까지 협상이 지속된 이유는 함께 추구할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이 불일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동독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복한은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고집했다는 것이다.<sup>42)</sup>

조약체결 이후 동독은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은 1977년의 논의를 실현한 것으로,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친선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도모하며 사회주의의 성과를 수호하고 동시에 사회주의국가들의 단결과 단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사회주의 국가’ 단합 측면을 강조하여 의미를 부여했다.<sup>43)</sup> 이러한 평가는 조약 제4조<sup>44)</sup>를 강조한 것이다. 사실 조약의 전문에는 ‘사

40) “에리히 호네커가 이끄는 동독당 및 국가 대표단의 공식 방문(The Official Visit of the GDR Party and State Delegation led by Erich Honecker to the DPRK, December 15, 1977).”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rchive of the Roman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lder 929/1977, Issue 220/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everal socialist countries in Europe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the People’s Republic of Hungary), April - December 1977. ,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861>(검색일:2023.7. 30.).

41) “에리히 호네커와 김일성의 대화각서(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Erich Honecker and Kim Il Sung, June 1, 1984).” In Grace Leonard ed.,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SAPMO-BA, DY 30, 246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199>(검색일:2023.7.30.).

42) PA AA M 34/21587 (1980-1983): Grundfragen der Außenpolitik, Kampf um Frieden, Fortschreibungsinformation, “Die Haltung der PdAK zu Grundfragen der internationalen kommunistischen Bewegung” 1980. 08. 20; Lim, Cho Rong, “동독의 대북정책-호네커 집권 시기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p. 28.

43) Stoph, Willi, Oskar Fischer and Kurt Kleinert, “독일민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호 협력 조약(Band 2051, Vertrag über Freundschaft und Zusammenarbeit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Koreanischen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Bestand DC20 I/3, Band 2051, p. 9, [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08\\_01C0019](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08_01C0019)(검색일:2023.8.1.).

회주의나라들사이의 단결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조’, ‘사회주의 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 협조와 련대성’, ‘아세아와 구라파를 비롯한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란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은 사회주의 뿐 아니라 ‘비동맹’ ‘개발도상국’ ‘아시아’의 연대를 지향한다는 합의였다. 이러한 합의는 비공개회담에서 김일성이 강조한 비동맹운동과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호네커가 동의하면서 도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약의 전문에는 북한의 입장을 조약의 조항에서는 동독의 입장을 담아 양국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개한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의 전문에서 뿐 아니라 동독의 자료에서도 동일한 전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45)</sup>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에서 군사분야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문서와 교류를 통해 북한과 동독의 군사협력을 가늠할 수 있다. 1984년 8월 31일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군사대표단이 동독을 방문하고 9월 1일 북한-동독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으며, 9월 2일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방문, 9월 3일에는 호네커 동독 서기장을 면담하였다. 9월 4일에는 동독 군부대와 군사훈련 시설을 시찰하고 국방장관과도 회담을 가졌다.<sup>46)</sup> 주목할 것은 동독이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MIG-21 항공기 유형과 북한을 위한 관련 엔진의 주요 점검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독과 북한 사이에 정부 간 협정」을 체결했다고 기록한 자료이다.<sup>47)</sup> 1985년은 북한이 소련에게 무기를 요청했지만,

44) 제4조 체약국 쌍방은 사회주의진취물을 수호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며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5, p. 538.

45) Stoph, Willi, Oskar Fischer and Kurt Kleinert, “독일민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호 협력 조약(Band 2051, Vertrag über Freundschaft und Zusammenarbeit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Koreanischen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Bestand DC20 I/3, Band 2051 pp. 10~11, [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08\\_01C0019](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08_01C0019)(검색일: 2023.8.1.).

46) 외교부, “북한의 대동구권 관계, 1981-84,”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I)』, p. 624.

47) 이 협정은 북한의 공식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동독자료에는 1985년 10월 20~26일 평양에서 체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협정관련 내용은 없지만,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0월 21일 평양에 도착하여 회담을 진행한 것과, 조선과학기술총련맹중앙위원회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기술원 상무위원회 사이의 과학기술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이 21일 평양에서 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시기로 북한이 요청했던 MIG-23은 1986년 7월 28일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 이후에 북한에 제공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MIG-21은 당시 북한에게 최고의 전략무기였다.<sup>48)</sup> 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북한과 동독의 전문대표단은 1월과 7월 두 차례의 공식협상을 가졌다. 결과 협정문과 MIG-21에 대한 기술지도, 부품 및 장비 조달 등을 포함한 상세한 일정이 10월 평양에서 작성되었다.<sup>49)</sup>

#### IV. 김일성-호네커 정상회담의 함의

##### 1.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외정책 변화

1977년에 이어 1980년대 두 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1977년에는 체결되지 못했던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이 1984년에 체결된 데에는 국제정세 변화와 맞물려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외정책 변화가 큰 추동력이 되었다. 전후 복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동독과 북한이 멀어진 이유에는 간접적으로 1960년대 초반 중·소 분쟁에서 북한과 동독이 각각 중국과 소련을 지지한 배경이 작동하였다. 직접적으로는 북소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채무불이행이 영향을 미쳤지만,<sup>50)</sup> 분단국

---

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회담 진행.” 『로동신문』 1985년 10월 22일, 5면; “우리나라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사이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조.” 『로동신문』 1985년 10월 23일, 4면.

48) MIG-21은 현재도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다. (180대 보유, 2010년 기준 북한 전투기 중 최다보유)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2023.8.15.\)](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2023.8.15.)).

49) Stoph, Willi, “1990년까지 미그 21기와 엔진 사업협력을 위한 동독-북한 조약의 체결(VVS B 2 - 1075/85, Band 5691, Die Direktive und der Beschluß über den Abschluß des "Abkommens zwischen der Regierung der DDR und der Regierung der KDVR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Durchführung der Hauptinstandsetzung von Flugzeugen MIG-21 und ihren Triebwerken in der KDVR bis 1990" in der KDVR (20. - 26. 10.198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Bestand DC20 I/4, Band 5691, [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08\\_05C0008\(검색일:2023.8.1.\)](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08_05C0008(검색일:2023.8.1.)).

인 동독과 북한의 다른 통일관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동독은 국가연합이라는 통일 방안을 1970년대 ‘평화공존’으로 전환했지만, 북한은 남한에서의 민주적 혁명에 대한 기대를 접지않고, 심지어 무장폭력까지도 사용할 의사를 간직하고 있었다.<sup>51)</sup> 따라서 1972년 동독과 서독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73년 9월 18일 유엔에 동시 가입한 사건에 대해 북한은 동독과의 관계에 부담을 갖게 되었다.<sup>52)</sup> 물론 북한도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동독이 1972년 이후 서독과 평화공존을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공존을 영구분단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1977년 호네커의 북한방문 당시 우호조약은 체결되기 어려웠으며, 사회주의 진영으로서 공동 노선도 확고히 할 수 없었다.<sup>53)</sup> 통일관에 기초한 북한과 동독의 온도차는 1977년 호네커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일성이 군중대회에서 한 환영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민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는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혁명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은 독일이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면 조선인민은 나라를 하나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문제는 역사적 견지로 보나 현정세로 보나 독일의 경우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날 독일은 중주국이었으나 조선은 식민지나라였습니다.”<sup>54)</sup>

50)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호네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다른 동독 관계자들은 회의적이었다. 공식적인 수석어와는 달리 동독의 고위 관계자 간의 서신 혹은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의 관계가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인정하지만, 북한 측이 협상에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1983년에는 심지어 북한은 스스로 제안했던 원자재 분야(잔류아연, 납슬래그)까지 철회하였다고 한다. 임초룡은 관련 내용(1980-1982년)을 동독의 외교사료를 통해 자세히 정리하였다. Lim, Cho Rong, “동독의 대북정책-호네커 집권 시기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pp. 21~35.

51) 성상환, “냉전시기 북한정부의 체제유지 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Ⅱ - 구동독외무성 외교사료 해제.” 『2010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제2차 남북통합을 위한 학술적 준비 사료해제·최도개발·계통분류·지원모델』, 2010, p. 17.

52) 이경석·김경미, “냉전기 북한-동독의 외교관계(1953~1989): 협력과 갈등.”, p. 168.

53) 김연수, “김일성의 동독방문과 북한의 대동독관계 35년.” 『북한』 11월호, 1984, p. 103.

54) “우리는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연회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연방제 형태의 남북통일을 공표하여,<sup>55)</sup> 기존의 공산화 통일 노선의 변화를 분명히 주장했다. 특히 1980년의 공표가 대내적인 연설이었다면, 1984년 북한이 남북미 3자대화를 제안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북관계의 하나의 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56)</sup> 1984년 김일성이 동독을 방문하기 전에도 헤르베르트 크롤리코프스키는 김일성과 만남을 통해 본국에 김일성이 두 독일 국가의 인정을 지지한다는 점을 전했다.<sup>57)</sup>

1984년 6월 동독은 김일성의 동독 방문 이후 ‘북한이 이제 국제 계급투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는 첫째, 1977년에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제는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며, 둘째, 1977년에는 동독에게 남한과의 어떠한 관계도 수립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1984년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 특히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전제 조건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꼽았다.<sup>58)</sup>

미소의 군사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zawa Treaty Organization)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점도 정상회담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동독은 동서독의 위기상황에서 소련을 적

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77년 12월 11일, 3면.

55) 장달중 편, 『현대북한학 강의』(1판), 서울: (주)사회평론, 2013, p. 24.

56) 북한은 1984년 1월에 종전의 방침을 바꾸어 3자회담을 지지하고 나옴으로써 전두환 정권과 대화할 의도가 있음을 처음으로 표시하였으며 이때부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하나의 방안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다. 고병철, “북한의 통일전략은 변하고 있는가.” 『계간 사상』, 1991, pp. 103~105.

57) “Band 16. 외무부 차관 겸 수석대표 헤르베르트 크롤리코프스키 박사의 김일성의 방문 접견 (Band 16. Genosse Dr. Herbert Krolkowski, Staatssekretär und 1. Stellvertreter des Minister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zum Besuch von Kim Il Sung).”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Bestand DY30 IV 2/2.040, Band 16 자료철 ADE006\_38\_10C0009, [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38\\_10C0009](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38_10C0009)(검색일:2023.7.30.).

58)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의 동독 국민방문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About the State Visit of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WPK CC and President of the DPRK, Kim Il Sung, to the GDR, June 7, 1984).”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BStU, MfS, HA II/10, Nr. 748, p. 55-62. Obtained and translated by Thomas Stock.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208247> (검색일:2023.7.30.).

극 지지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통한 사회주의진영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1983년 아웅산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으로 선회를 시도하면서 이전까지 거리를 두었던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적극 지지하자, 동독과 호네커의 환영을 받았다.<sup>59)</sup>

따라서 1984년 김일성이 동독을 방문하기 전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의 변화는 사회주의진영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호네커를 안심시키기 충분했다.

또한 호네커는 김정일의 후계자 승인을 비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동독의 기밀문서에서도 김일성이 동독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 동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sup>60)</sup> 1984년 동독에서는 김정일에 관련한 책을 출판했다.<sup>61)</sup> 1985년과 1986년에는 김일성 뿐 아니라 김정일에게도 북한을 방문하는 대표단이 선물을 증정하였으며,<sup>62)</sup> 1986년에는 호네커도 김정일에게 선물을 주었다.<sup>63)</sup> 따라서 동독과 북한은 서로의 대내 정치와 대외 정치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를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이어갈 수 있었다.

59) 박아름, “1980년대 냉전의 균열과 북한의 대응: ‘우리 식 사회주의’의 출현과 함의.” 『동북아연구』 제36권 제1호, 2021, pp. 80~85.

60)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의 동독 국민방문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About the State Visit of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WPK CC and President of the DPRK, Kim Il Sung, to the GDR, June 7, 1984),” In Thomas Stock ed.,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BStU, MfS, HA II/10, Nr. 748, pp. 55~62,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208247> (검색일:2023.7.30.).

61)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예지, 령도풍모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담은 책 <인민의 지도자>(1)를 신문 <호리존트> 제1호가 1984년 소개하였으며 독일어로 번역출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독일민주주의공화국\_우리 나라와의 관계.” 『조선중앙연감 198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5, p. 383.

6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독일의 공산당 위원장 헤르베르트 미스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의 공산당대표단이 1985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 헤르베르트 미스위원장이 선물을 전해드리었다. 조선중앙통신사, “독일의 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중앙연감 1986』,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6, p. 127.

6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 에리히 호네케르동지께서 선물을 드리시었다.” 『민주조선』 1986년 10월 20일, 1면; 조선중앙통신사,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소베트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 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중앙연감 1986』, p. 300.

## 2. ‘새 세계’에 대한 이상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의 비동맹운동에 대한 지원, 지지, 간섭이 달라졌다. 또한 제3세계들도 내부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더불어 자국의 경제사정, 사회주의 신생국가들에 대한 실망으로 비동맹운동 국가를 지원하는 데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sup>64)</sup> 반대로 미국은 레이건의 등장과 1983년 그레나다 침공으로 제3세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반 혁명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sup>65)</sup>

1984년 5월 30일 비공개회담에서 호네커는 동독의 대외무역에 대해 사회주의권 내의 무역이 70% 비사회주의권과의 무역이 3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면서 비동맹 국가들과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비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었다.<sup>66)</sup> 동독은 ‘비사회주의 경제지역(Nichtsozialistisches Wirtschaftsgebiet)’의 수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며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이 비사회주의로부터의 수입을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sup>67)</sup>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기술

64) 오드 아르네 베스타 지음, 옥창준 옮김, 『냉전의 지구사』, 서울: 예코리브르, 2020, pp. 540~542·590~591.

65) 제임스 E. 도거티, 로버트 L. 팔츠그라프 지음, 이수형 옮김, 『미국외교정책사: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p. 503.

66) “에리히 호네커와 김일성의 대화각서(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Erich Honecker and Kim Il Sung, June 1, 1984).” In Grace Leonard ed.,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SAPMO-BA, DY 30, 246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199>(검색일:2023.7.30.); Kim Il Sung · Paul Markowski · Erich Honecker · Niklas, “Band 2460. 에리히 호네커와 김일성의 회담(Band 2460. Besprechung zwischen Erich Honecker und Kim Il Sung).” 『Bestand DY30, Band 2460』 pp. 216~246, [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38\\_01C0003](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38_01C0003)(검색일:2023.7.30.).

67) 1984년 6월 14일에 쓰여진 보고서에서는 장기무역협정에 따라 1984년 상품 회전율은 1979년에 비해 160% 증가할 것을 예상했으며, 차기 장기 무역협정을 준비할 때 비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대체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약속한 점을 강조하였다. Krolikowski, Werner, “VVS B 2-653/B4, Bestand 2046, 북한 공식 우호사절단 방문(VVS B 2-653/B4, Band 2046, Der offiziellen Freundschaftesbesuch der Partei- und Staatsdelegation der Koreanischen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in der DDR).”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Bestand DC20

및 원료를 구입하려는 목표에서 김일성과 호네커는 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더 나아가 사회주의 진영과 비동맹 국가와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적 기술적 현실은 제3세계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기술적 지원의 역할을 자신보다 더 발전한 동독이 맡아 주길 바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전부터 동독이 비사회주의권과의 무역을 증대하고 아프리카 국가와 활발히 교류하는 상황을 파악하고,<sup>68)</sup> 호네커에게 비동맹운동과 사회주의와의 연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북한은 중국이 자본주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도 함께 구출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기술과 원자재의 교환을 자본주의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했다. 동독도 북한의 아프리카 지원이 한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력에 호응할 수 있었다.<sup>69)</sup>

따라서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도록 만드는 것’을 임무로 간주했던 김일성과 호네커는 ‘새세계’에 대한 이상을 공유할 수 있었다.

1/3, Band 2046, [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08\\_01C0018](https://archive.history.go.kr/id/ADE006_08_01C0018)(검색일:2023.7.30.).

68) 동독 정보란에 “1983년 동독의 대외무역액이 12% 증가하였는데,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수출은 12%, 비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수출은 1982년에 비하여 7% 늘어났다”고 기록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인 모잠비크 대통령(3월), 투메프린시페 대통령(4월), 짐바브웨 총리(5월)가 동독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84』, p. 562; 김일성의 동독방문 이후에도 아프리카 국가인 앙골라 대통령(8월)이 동독을 방문하고, 호네커가 에티오피아(9월), 알제리(12월)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동독과 비사회주의 국가들의 교류를 기록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85』, p. 382; 김일성과 호네커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린 1986년 동독은 비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15억 마르크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448.

69)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는 활발하나 북한의 경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실제 케냐와 모로코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 원수들이 북한을 다녀온 것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에 많은 것을 요청한 것에 반해 북한의 경제력이 부족하며 북한은 정치적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의 동독 국빈방문에 관한 정보(Information About the State Visit of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WPK CC and President of the DPRK, Kim Il Sung, to the GDR, June 7, 1984).” In Thomas Stock ed.,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BStU, MfS, HA II/10, Nr. 748, pp. 55~62,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208247>(검색일:2023.7.30.).

## V. 나가며

1980년대 중반 서로를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서방초소’와 ‘동방초소’로 호칭하는 북한과 동독의 상황은 냉전과 열전 사이에 놓인 국가들의 불안과 공포를 보여 준다. 물론 미국과 소련의 화해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중국과 소련의 관계정상화가 표면화되는 등, 국제정세는 신냉전에서 신데탕트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해 분단국의 지도자인 김일성과 호네커가 ‘위기’를 강조하는 대화는 ‘전략’일지 모른다는 의문을 남긴다.

예를 들어 동독과 서독은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었으며, 서독의 대(對) 동독 경제적 지원과 민간분야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김일성이 호네커에게 요청했던 갈탄 관련 채굴기술은 동독의 갈탄 수요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sup>70)</sup> 김일성이 동독에서 생산하는 줄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합성고무와 제초제도 『조선중앙년감 1981』의 동독 ‘경제, 사회문화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sup>71)</sup> 따라서 호네커는 위기를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정보를 획득하고, 김일성은 자국의 경제를 안보와 연계시키면서, 동독의 지원 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서론에서 제기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과 동독의 정상회담이 왜 1984년에 이루어졌는가?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가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7년 호네커의 방북 당시 양국 지도자는 다음 만남을 기약했지만, 이 약속이 실현되는 데는 국제정세와 소련의 결단이 필요했다. 약 20여 년 만에 소련과 관계를 회복한 북한의 소련방문은

70) 연료동력공업에서 기본은 갈탄이다. 갈탄은 이 나라 전력생산의 80%를 담당한다. 『조선중앙년감 198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1, p. 567; 이 나라에서 갈탄을 리용하여 에네르기를 얻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특히 갈탄으로 생산하는 가스의 비율은 45%로 증가될 것이 예견된다. 이 나라 유기원료의 4분의 1은 갈탄에서 얻어낸 것이다. “갈탄을 리용하여.” 『로동신문』 1986년 12월 23일, 6면.

71) (동독의) 화학공업에서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생산은 세계에서 손꼽힌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1』, p. 567.

동독방문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한편 국내적으로 1984년 북한은 남북미 3자대화를 미국에 직접 제안하면서 1980년대에 언급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대외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소련과의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전체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의 변화는 동독의 평화공존 통일정책 및 대외정책(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역할을 적극 지지하는)과 화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정일 후계자 구축에 대한 호네커의 간접적인 지지도 북한과 동독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84년 김일성의 동독방문은 1986년 호네커의 북한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둘째, 정상회담의 내용은 무엇인가? 호네커가 중국에 대한 높은 불안과 관심의 의제로 대외정책에 집중했다면, 김일성은 자국의 불안한 경제 상황을 안보적 위협과 연계시키며 동독으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김일성은 호네커의 질문에 대해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뿐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과 연대를 회복하려 한다는 내용을 충실히 전달했다. 김일성은 기계화 비중이 높아져 가는 동독의 상황을 칭찬하면서 북한에서도 에너지와 원자재가 확보되는 상황이지만,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독의 기술과 원자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해당 자원을 구입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호네커는 비자본주의 국가 간에 원자재와 기술을 거래하는 것에 동의하고, 회담 안에서 김일성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했다. 무엇보다 비동맹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를 달성하려는 김일성의 의견에 호네커가 동의를 표했다.

셋째, 1980년대 중반 북한과 동독 정상회담의 함의는 무엇인가? 김일성과 호네커의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계급적 동지애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동독은 1984년 김일성의 동독방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렸으며, 중국에 대한 의구심도 일정 해소할 수 있었다. 양국은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분야의 실질적인 협력도 진행했다. 물론 조약에 대한 평가에서 동독은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를 강조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과 제3세계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냉전기 분단국의

두 지도자가 자본주의 진영에 맞서 ‘새 세계’를 규합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두 지도자가 두려워한 것은 신냉전이었을까? 신데탕트였을까? 향후 1986년 호네커의 북한방문을 분석하여 급격히 달려진 국제정세 속에서 ‘새 세계’를 이룩하려던 이상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병철, “북한의 통일전략은 변하고 있는가.” 『계간 사상』, 1991.
- 고유환, “사회주의의 위기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 1995.
- 김연수, “김일성의 동독방문과 북한의 대동독관계 35년.” 『북한』 11월호, 1984.
- 김학준, 『러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 2005.
- 데이비드 E. 호프먼 지음, 유강은 옮김, 『데드핸드』, 서울: 미지북스, 2015.
- 박아름, “1980년대 냉전의 균열과 북한의 대응: ‘우리 식 사회주의’의 출현과 함의.” 『동북아 연구』 제36권 제1호, 2021.
-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빅터 D. 차,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문학과학사, 2004.
- 선종률, “남북한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 성상환, “냉전시기 북한정부의 체제유지 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Ⅱ - 구동독외무성 외교 사료 해제.” 『2010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제2차 남북통합을 위한 학술적 준비 자료해제·척도개발·계통분류·지원모델』, 2010.
- 양현모, “동서독 의회 간 교류 사례가 남북 국회회담에 주는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9.
- 오드 아르네 베스타 지음, 옥창준 옮김, 『냉전의 지구사』, 서울: 에코리브르, 2020.
- 외교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Ⅰ)』, 서울: 외교부, 2015.
- 외교부,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4(Ⅱ)』, 서울: 외교부, 2015.
- 이경석·김경미, “냉전기 북한-동독의 외교관계(1953~1989): 협력과 갈등.” 『유럽연구』 제34권 3호, 2016.
- 이동기, “1980년대 서독 녹색당의 평화-통일 정책.” 『EU연구』 제33권, 2013.
- 장달중 편, 『현대북한학 강의(1판)』, 서울: (주)사회평론, 2013.
- 제임스 E. 도거티, 로버트 L. 팔츠그라프 지음, 이수형 옮김, 『미국외교정책사: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파주: 한울엠플러스, 2020.
- Schaefer, Bernd, “Weathering Moscow and Beijing: The GDR and North Korea, 1949-1989.” 『역사문화연구』 제21호, 2004.
- Lim, Cho Rong, “동독의 대북정책-호네커 집권 시기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학위논문, 2021.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1·1984·1985·1987·1988년 각 호. 『로동신문』.
- 『민주조선』.
- 『일간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https://archive.history.go.kr/>.

『우드로 윌슨센터』,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 Abstract

Cracks in the Cold War and the Ideals of Leaders of a Divided Country: Focusing on the 1984 Summit Meeting betwee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East Germany

Ah Reum Park(Lectur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Cold Wa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East Germany called each other 'Western Outpost' and 'Eastern Outpost' as socialist bastions against capitalism in Asia and Europe,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syndetistic trends of conflict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SR in the mid-1980s would have required much consideration and new strategies from the divided countries of East Germany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of each country at the time, leaders' perceptions, cooperation strategies, and implications through the summit meeting between Kim Il-sung and Honecker in the mid-1980s. First, we looked at the ri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asing of tension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1980s. Second, the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strengthening of solidarity between the socialist camps were confirmed through the contents of the private meeting during the summit. Third, beyond the 'Cold War history centered on the U.S.S.' and the 'history of the Sino-Soviet centered camp,' the ideal of the 'new world' sought b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East Germany was examined.

Keywords: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ast Germany, Kim Il-sung, Honecker, New Cold War, Cold War, New Détente

투고일: 2023년 12월 26일, 심사일: 2024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15일